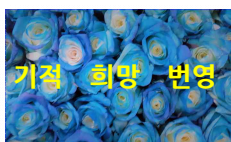


## 목차(目次)

<b>I. 최초 고발인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정체와 묘한 시점에 제출된 고발장</b>	<b>1</b>
1. 한겨레신문 보도 9일 후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	1
2. 고발인 「투기자본 감시센터」와 민주노총과의 연관성	3
3. 촛불시위는 고발장이 제출되고 한 달 후부터 시작	4
4.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 수는 86명	4
5.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TV 조선과 한겨레신문의 허위 기사	7
6.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의 취재 경위와 특검 수사팀장이 된 윤석열	8
7. 고발인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제출하지 않는 검찰의 의심스런 행태	9
<b>II.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된 특검 수사의 불공정성과 위법·부당성</b>	<b>11</b>
1. 원샷법 제정 취지와 민주노총이 반대한 이유	11
2. 고발장은 특검에 수사 방향을 제시한 이정표	12
3. 대통령은 이견희 회장이 쓰러질 줄 미리 알았다는 특검의 해괴한 논리	13
4. 특검이 승계 작업과 관련 있다고 밝힌 10개 현안의 허구성	14
5.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성명서를 특검은 로비활동으로 각색	15
6. 특검의 증거는 절반 이상이 언론의 허위 기사	16
7. 승마 지원 증거서류는 언론 기사들	18
8. 증거는 찾지 않고 수사협조자의 이해와 주장만 따라간 특검 수사	19
9. 특검 신자용 검사, 최서원에게 “삼족을 멸하겠다”고 겁박	20
10. 경제공동체로 묶으려 최서원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새벽 까지 심야 조사	21
1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24
12. 이재용 사건 항소심은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판결	24



###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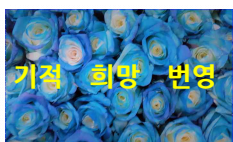
E-mai : wjc57@naver.com

Ⅲ. 정동구 이사장이 밝힌 K 스포츠재단 설립의 진실 및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 25

- 1. 정동구 이사장은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의 체육계 원로 ..... 25
- 2.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의 사기행각을 저지한 사람이 정동구 이사장 ..... 27
- 3. 허위 용역제안서 작성자는 박헌영 ..... 28
- 4. 정동구를 이사장에서 물러나라고 한 사람은 안종범 ..... 29

Ⅳ. 노승일의 경력과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 31

- 1. 노승일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모른다”고 두 차례나 부인 ..... 31
- 2. 노승일이 독일로 출국한 것은 “이민을 가기 위해서” ..... 32
- 3. 노승일의 독일 내 역할은 최서원의 운전기사 ..... 33
- 4. 노승일, 독일에서 박원오를 만났다 ..... 35



「거짓과 진실」

서울 강북구 솔매로 29, 301호(미아동)

대표 기자 우종창(cell:010-5307-5472)

E-mai : wjc57@naver.com